
문서번호 : 15-11-사무-05
수 신 : 언론사 제위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보도자료][부고] 민변 초대 대표 조준희 변호사 별세
전송일자 : 2015. 11. 19.(목)
전송매수 : 총 3매

[부 고]

불 뺐어

아니 불 들어가

거기 의지의 기운이 담겨 있다

잘 모르겠다

그 의지 말고 평범하다

그 평범 말고 면밀하다

--<중략>--

저런 사람이 어떻게 반대신문인가 최후변론인가

그러나 피고인석 방청석에서 오른쪽

판사석에서 왼쪽

거기 변호인석에서 경쾌하게 일어나며

그의 조목조목은 산 넘고 물 건너

꽃소식 한 다발 가져온다

- 고은 만인보 중 <조준희> -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변호사가 18일 78세의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38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1959년 제11회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다 1971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이후 엄혹한 유신독재에 저항하여 1980년대까지 시국사건을 도맡아 왔던 이돈명, 황인철, 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원풍모방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 사 농성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아 '인권변호사 4인방'으로 불렸습니다. 80년대에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미문화원 점거 농성사건, 말지 보도지침 사건, 남민전 사건 등의 변론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특별조사단 활동을 통해 민주화 인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1986년에는 한승헌, 홍성우, 이돈명, 조영래 변호사 등 인권변호의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모태가 된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으며 1988년 민변 창립과 함께 민변의 초대 대표를 맡아 불의에 단호히 맞서는 인권변론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94년 인권변호사로는 처음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였으며 2001~2002년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2005~2008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03~2004년까지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사법개혁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함옥경 여사, 아들 용석, 용욱씨와 딸 혜진씨가 있으며 빈소는 삼성의료원에 마련되었습니다. 장례는 민변장으로 치러 질 예정이며 추모의 밤 행사는 20일(금) 19:30, 발인은 21일(토) 06:30이며 장지는 경북 상주시 헌신동 선산입니다.

2015.11.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